

삶과 추억의 골목길, 고추말고개

이 용 욱

도림동 당제와 고추말 어린이공원

영등포역 고가도로 끝부분에 영등포푸르지오아파트로 가는 이차선 도로가 나온다. 비탈진 골목길인데 고추말고개라고 불린다.



도림동 도당의 모습(1980년대)

고추말고갯길 끝에서 단독주택지 골목길로 조금 더 올라가면 고추말어린이공원이 나온다.

그 공원 안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도림당(道林堂)’이다.

도림동 당제는 산제(山祭)였다. 산제는 산신제로 산신령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서울시가 1990년에 펴낸 「서울민속대관(서울民俗大觀)」 「1. 민간신앙(民間信仰)」 편에 실린 도림1동 산제당 관련 동네 노인의 구술을 보면, 현재 고추말어린이공원 부지(도림1동 23-1)에 당집이 있었고, 매년 음력 10월 3일 오후 2~3시경에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고추말어린이공원 안 도림당

이후 제를 지내지 않게 되자 당시 마땅히 살 곳이 없던 서갑득씨에게 당집을 빌려줬고, 서씨는 이 집을 보수하여 살다가 이사 갔고, 영등포구청이 이곳을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며 이름을 고추말어린이공원이라 지었다. 그리고 공원 한쪽에 정자를 지어 도림당(道林堂)이라 현판을 붙여 제당의 명맥을 이어 가게 되었다.

2015년 6월 9일 「매일일보」 기사 「영등포구, 고추말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추진」을 보면 20년 동안 어린이놀이터로 주민들의 휴식처였던 공원을 정비한다고 했으니 제당이 없어진 지는 대략 30년쯤 되는 것 같다.

중단되었던 당제를 동네 구립경로당 주관으로 이어가는데, 예전에는 당제 비용을 동네 주민들이 쌀 한 되씩 한 가마 반 정도를 모아 충당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제는 음력 10월 3일에 지내는데 올해, 2022년은 오전 11시에 도림당에서 동네 분들이 모여 제를 지냈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도림동 산제당(山祭堂) 당집 안에는 제단에 호랑이 그림이 있었다고도 한다. 산제당은 보통 마을 뒷산에 마련하는데 이 지역이 그쯤 해당했을 것이고, 산신제를 지내는 목적은 마을 주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인데 그 의의는 지금도 같다.

영등포의 부군당과 도당

「서울민속대관」은 서울시가 서울의 무형문화재를 조사, 정리하여 1990년 12월에 펴낸 책이다. 집필은 전문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면담하여 실재하는 유형은 사진으로 기록하고 무형은 기록으로 집대성하였다.

첫 번째 「민간신앙」 편에는 부군당(符君堂), 도당(都堂), 산제당(山祭堂), 왕장당(王將堂), 불당(佛堂), 기타 제당(祭堂) 순으로 편집하였는데 영등포는 부군당 네 곳과 도당 한 곳, 그리고 산제당 세 곳으로, 여덟 곳이 소개되었다.

부군당 네 곳은 당산동 부군당, 신길2동(방학곶지) 부군당, 양평동 제당, 영등포3동 상산전을, 도당은 신길3동 신기리 도당을, 산제당은 대림1동, 대림3동, 도림1동 산제당을 소개한다.

그중 ‘양평동 제당의 제당은 소멸하고 신목(神木)만 남아있었다’라고 조사되었고, 책 뒤에 수록된 1967년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민속관의 「전국 부락 당제 조사결과」에는 “해태제과 앞에 송목(松木) 5주(株)와 해태제과 뒤에 느티나무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태제과 공장은 이전하였고 그 부지에는 1996년 4월 한신아파트가 들어섰다. 이 개발 와중에 신목은 없어지고 50년 전 당시에 10년 된 느티나무를 마을 주민이 노들길 옆 가로 공원에 옮겨 심었고, 매년 음력 10월 1일이면 그곳 느티나무에서 당제를 지내고 있다.

영등포3동 상산전은 행정구역이 영등포동으로 바뀌었고 재개발되어 지하철 영등포시장역 아크로타워스퀘어 아파트 단지 공개공지로 이전하였으나 제는 지내지 않고 있다.

방학곶지 부군당은 음력 9월 25일 대동계에서 제일(祭日)을 정하는데 대부분 음력 10월 1일 또는 10월 3일로 정하고 무당이 주관하여 제를 지내고,

당산동 부군당은 음력 10월 1일 무당이 주관하고, 신기리 도당은 음력 10월 3일 향우회에서 주관하여 제를 지낸다.

산제당(山祭堂)은 세 군데 다 소멸했으나 도림1동 당제는 인근 구립경로당이 주관하여 고추말어린이공원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고추말어린이공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마포구, 동작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에 당(堂)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한강변을 중심으로 당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예전에 이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고, 한강 수로를 이용한 수상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제당이 많이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당(堂) 분포 상황에 대한 「서울민속대관」의 설명이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당은 소실되었고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이 많은 지역이나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현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영등포는 매년 음력 시월에 부군당제를 지낸다. 제를 지내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술도 함께 나눈다. 대부분 동네 경로당에서 주관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연로한 분들로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을 보존하고 당제를 지내는 이유는 예전의 신앙을 되살리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마을 주민이 단합하고 화합할 수가 있으며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데에 있다. 이마저도 세태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를 일이나, 동네

어귀에 당이 보존되어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지나는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을 생각하고 한번쯤 자신들이 사는 마을을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을 보존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다시 고추말, 고추말고개와 고추말의 유래

「서울지명사전」은 [겨울철 고개를 넘을 때 바람이 몹시 차서 고추처럼 맵다]하여 유래된 이름이라고 고추말을 소개한다.



고추말어린이공원 보안등

이 비탈길의 가로등을 고추 모양으로 만들었었다. 고추말고개를 알릴 조형물로 고추가 특산물인 충남 청양군과 공동부담으로 2007년 11월 설치했다고 한다.

최근 도림동 당제를 보러 고추말어린이공원으로 가는 길에 보니 고추 모양은 떼어지고 없었다. 고추말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보안등은 아직 예전 고추 모양 가로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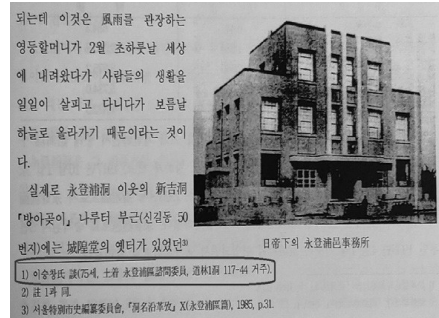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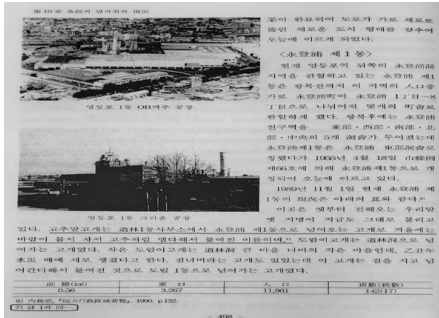
고추말고개라는 이름은 민간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다 보니 이름이 된 것이다.

도림동 당제 다음날 고추말어린이공원을 다시 찾았었다. 공원 주변에 ‘고추말’ 이름을 가진 간판을 찾아보기 위함이었다. 공원 입구에 ‘고추말하우스’ 간판을 단 빌라와 건너편 쪽으로 ‘고추말슈퍼’와 ‘고추말이발관’이 있었다. 색 바랜 간판들은 이곳이 꽤 오래전부터 ‘고추말’이란 이름으로 불리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공원 앞에서 동네 어르신을 만났다. 시장을 갔다 오시는 듯했다. 노인들이 다니기에는 가팔랐다. 신길동에서 사시다가 이사 온 지 20년이 넘었다고 했다. 도림동 산제당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고추말이 어떻게 나온 말인지 물어보니 주택가를 가리키며, 지금은 돌아가신 하얀 집에 사시던 노인이 이곳에 오래 사셨는데 이곳에 고추를 많이 심어 고추말이라고 부른다고 들었다 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민간어원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굳어질 수도 있다.

영등포구청에서 발간한 「영등포구지」(永登浦區誌, 1991년) 제10장 「각 동의 발자취와 현황」 498쪽 영등포 제1동에서 “고추말고개는 도림1동사무소에서 영등포 제1동으로 넘어오는 고개로 겨울에는 바람이 몹시 차서 고추처럼 맵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며”라고 고추말고개를 설명하고 <이승창氏談(75세, 土着 永登浦區諮問委員, 道林1洞 117-44 거주)>라고 각주를 달았다.



영등포구지 1991

이후 영등포구청 발간 「영등포구 근대 100년사」(1994년)에도, 서울시에서 발간한 「서울지명사전」(2009년)에도 ‘고추말고개’의 유래로 굳어졌고 지금은 모든 자료에 ‘고추말고개’의 정설로 되었다. 이승창(李承昌)씨는 1991년 「영등포구지」 발간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민간어원이 생기는 과정의 한 예(例)다 싶다.

그러나 학자 얘기는 다르다. 문래동에 오래 거주하며 지명을 연구하는 창원대 민공기 명예교수는 2013년에 펴낸 「영등포의 정치와 문화 이야기」의 「중마루공원과 고추마을」에서 “고추는 꽃(串)에서, 말은 산이나 고개 등의 등성이를 일컫는 ‘마루’에서 변이되어, 고추말고개를 ‘방아꽃이에서 번어 올라간 등성으로 인식하여 그와 같은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덧붙여 “애초의 고추말고개는 영등포역을 건설하면서 허물어졌고 지금 고추말고개라 부르는 곳은 한 모퉁이가 될 것이라고 추측한다.”라고 말한다.

현재와 다르게 영등포역 고추말고개는 산등성이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민공기 교수가 말하는 고추말의 이름이 세월이 지나면서 쉬운 말로 바뀌지 않았나 싶다.

고추말이발관과 고추말슈퍼

고추말어린이공원 입구에 고추말슈퍼와 고추말이발관이 있다. 입구는 한사람 다닐만한 골목이다.

이발관은 비탈에 서있다. 이발관 상징과도 같은 이발소 표시등이 없다. 자세히 보니 옥상에 붙어있는데 망가졌다. 동네 사람들이나 다닐만한 곳이니 없어도 무방할 듯했다.

이발사는 혼자 앉아 있다가 손님을 맞았는데 이발소 의자가 두개 있었고 면도사는 따로 없는 듯했다. 면도는 하지 않고 머리만 잘랐다.

분위기로 봐서는 밀레의 ‘이삭줍기’ 또는 ‘만종’이나 혹은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시가 담긴 액자가 어딘가에 걸려 있어야 했다. 마땅한 공간이 없었다.

고추말이발관 간판의 유래를 묻자, 토요일 오후 심심하던 이발소에 갑자기 활기가 찾아왔다. 영등포푸르지오아파트 근처에서 영업을 하다 이곳으로 옮겼다고 했다. 고흥인가에서 올라와 사십년 됐다고 했다.

고추말 간판은 옆 슈퍼 아주머니가 처음 사용했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간판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다. 이발관도 그때쯤 같이 간판을 달았다고 했다.

지난번 만난 동네 아주머니처럼 공원 너머 비탈에 고추밭이 있었고 그런 연유로 고추말고 개라 불렀는데 지금 고개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 했다.

또, 고추말고개의 유래인 “고추처럼 매운바람이 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은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안타깝다고 했다. 고추말 간판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했다.

마을 이름이 지어지는 방법은 여럿이다.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형이나 시설물을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예전에 지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글이 없던 시절에 지명이 말로 전해지다 보니 시간이 지나며 바뀌기도 하고, 한자로 옮기며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사실, ‘고추말’이 학문적 해석과는 다르게 고추처럼 매운바람이든 고추밭에서 유래됐든 시시비비를 따질 일은 아니다.



고추말 슈퍼와 고추말 이발관

도림동과 대림동에 산제당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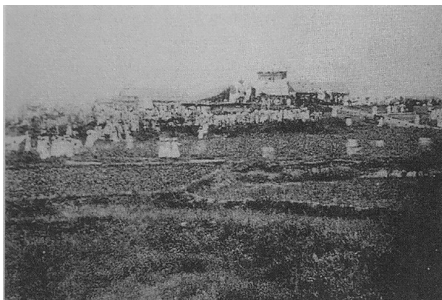
보통 산제당은 마을 뒷산에 마련된다고 하는데 영등포에는 도림1동, 대림1동, 대림3동 산제당이 있었다고 하고, 도림1동은 고추말어린이공원 자리에, 대림1동 산제당은 당집 없이 산 정상부근 평탄한 곳에서 제를 올렸고, 대림3동 산제당은 원지목(도림천 근처)에 있었다고 하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산을 깎아내려 자세한 장소는 모른다고 「서울민속대관」은 기록한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산을 깎아 택지를 조성하여 산의 모습은 잃었지만, 산이라 불릴만한 야산이 도림동과 대림동에 있었다는 얘기가.

「영등포구지」에 따르면 1922년 한강 제방을 쌓았으나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붕괴하였고, 1926년 3월에 다시 제방을 쌓았다고 한다. 영등포는 한강을 끼고 있는 마을로 큰비에 수시로 범람하여 제방을 쌓기 전에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라고 했다.

「영등포구지」 234쪽에 을축년(1925년) 대홍수를 <조선총독부 관측소>가 발간한 책자를 인용하여, “영등포 부근은 지난날 수차례의 홍수를 만나 침수의 액(厄)을 입어왔고 1925년 홍수는 고지(高地)에 세워졌던 철도관사(鐵道官舍) 부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침수하여 영등포역전에 있어서마저 그 참상은 일견(一見)해서 침수가 얼마나 맹렬했던가를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었으며 영등포리(永登浦里)의 가옥은 거의 전부 도괴, 유실하여 자취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한다.

또, 31쪽에 영등포역의 위치를 「조선철도사(朝鮮鐵道史)」를 인용하여, “경부선 철도 기공식 장면의 사진을 보면 당시의 영등포역은 꽤 높은 곳 즉 재(산 고개) 위에 있었던 것으로



京釜線鐵道 起工式(永登浦 1901년 8월 21일)

경부선철도 기공식(영등포구지 1991)

추측이 된다. 또한,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도 영등포 일대가 모두 침수되어 거의 원형을 남기지 않을 정도가 되었는데 유독 철도관사만은 전혀 침수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였다는 기록도 있다.”라고 각주로 설명한다.

영등포역은 등성이에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도림동 산제당이 있던 고추말어린이공원과 현재의

영등포역 사이에 고추말고개가 있다. 도림동 당제를 참관하고 고추말고개로 내려오는 길은 언덕이다. 멀리 영등포역이 한참 아래로 보였다.

사람은 설화를 만들고, 설화는 마을을 만든다

영등포공원 건너편 신길동 골목은 처음 가는 사람들은 길을 잃기 십상이다. 좁고 비탈지고 복잡하다.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멈췄다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그런 골목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영등포에는 이런 골목들이 꽤 있다.

그러나 그 골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다. 골목길에서 뛰어놀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 이 집이 누구 집이었고 저 집은 누구 집인지, 어느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가정사가 골목 안에 빠삭했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나, 애인을 바래다줬던 골목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골목이 아니다. 골목길 전봇대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 도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라는 시(詩)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 쇠귀에서 이야기와 추억이 있는 골목을 떠올렸다. 사람들의 온기와 자취가 남아있는 골목을 보전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골목에 쌓여온 사람들의 오랜 삶과 이야기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일도 다음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네 곳곳 골목길의 기록이 영등포를 다시 만나는 일일 것이다.

옥수(玉水), 맑은 물을 일컫는 말인데 서울시에서 펴낸 「서울지명사전」(2009년)에는 도림천을 ‘옥수’라고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도야미리, 거썰바탕이, 돼지마을, 원지막 등이 옛 도림동을 구성하는 자연부락들이다. 사람들이 마을을 그렇게 불렀던 사연과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찾아내고 기록하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사람은 설화를 만들고 설화는 마을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우리 마을 골목에 깃들여 있는 이야기들과 그곳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모으면 우리 영등포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고추말고개 가로등 점등 사진

예전 고추말고개 가로등을 보며 고개 입구 혹은 적당한 곳에 고추말고개 이야기를 담은 돌이라도 하나 세워 이해를 도우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추 모양 가로등도 떼어 냈으니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고추말을 기억이나 하겠는가. 그저 어느 동네에 있는 골목이 되어버렸다.

그저 평범한 골목길이나 언덕에 고추말이라는 이름과 사연을 소복히 쌓으면 평범하지 않은 길이 된다. 그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 지역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영등포는, 특히 신길동은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재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된 때문이다. 재개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은 무지막지하여 골목이나 비탈길 혹은 담장에 묻힌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영등포 곳곳에 그런 데가 많을 텐데, 아쉽다. 더 늦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기록하여 전할 수 있는 모임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이용욱 (영등문화원 사무국장)

서울신탁은행과 하나은행, 영등포구청 직소민원실장(2010~2018)에 이어 2019년 5월부터 영등포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신문인 '영등포시대'에 [이용욱의 영등포공원 느릿느릿 걷기]와 '영등포투데이' [이야기가 있는 우리동네 영등포]를 연재하고 있으며 [영투살롱]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